**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6)**

**<마태복음 6장 13b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지난 몇 주간에 걸쳐 함께 상고했던 내용들을 다시 마음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에 관한 몇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본에는 이 기록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에는 필사자들을 통해 성경내용이 전승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필사자들은 성경학자들이기도 해서 종종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설명을 첨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사본들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 구절이 원본에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은 이 부분을 괄호로 처리한 것입니다.

같은 주님의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일부 사본에만 이 내용이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마태복음의 주요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는 기도나 예배의 끝부분에 보통 송영이 들어갑니다. 송영이란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나 예배를 마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자였던 유대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는 이 송영이 첨가된 주님의기도가 더 자연스럽고 유익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전의 한글성경에는 본절 앞부분에 ‘대개’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중국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차용된 것입니다. 이 ‘대개’라는 단어는 한자로 ‘大(클 대)’와, ‘槪(대개 개, 덮을 개)’를 씁니다. ‘큰 원칙으로 보건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헬라어 원문의 뜻을 정확히 옮긴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호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왜냐하면’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고 운을 떼는 말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아멘’은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한 말은 다 진실입니다” 라고 확증하는 고백입니다. 즉, 내가 주님의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속해 있음을 내가 ‘진실로’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기도를 드리고나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내가 그것을 ‘진실로’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기도의 조건이자 이유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히11:6).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지식과 그에 기반한 믿음을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이 주님의기도의 능력을 실생활에서 체험하며 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기도해야 하는가?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다는 것은 시간의 어느 한 순간, 공간의 어느 한 영역조차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삶의 모든 통치권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 영역을 온전히 다스려주실 때, 내가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며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이 세상 모든 장소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의와 슬픔과 다툼이 있는 곳에서 의와 기쁨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핍과 죄악의 현실 속을 뚫고 들어오실 때, 비로소 우리가 서로 죽이는 길이 아닌 더불어 사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기도는 단연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짖음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기도의 이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것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른 세 개의 간구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결핍과 탐욕이 지배하는 현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양식이 없어 주리는 이에게 양식이 주어지길 구할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아래에서 자족과 나눔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상처와 미움으로 채워진 현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구할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아래에서 치유와 화해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유혹과 죄악이 넘실대는 현재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아래에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견고히 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나라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길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눅12:32),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간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본문에 ‘권세’로 번역된 헬라어는 ‘뒤나미스’인데, 이는 ‘권능’ 혹은 ‘능력’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또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능력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 이 세상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내 몸을 십자가에 못박는 심정으로 용서를 노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올려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 노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고 있음을 알고 (벧전3:12), 어리석어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전1:18).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사43:7).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42:8).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후4:6).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마5:16).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기억하며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이 주님의기도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나타나기를 염원하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양식’과 ‘용서’와 ‘보호’를 위한 세 개의 간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과 ‘관계’와 ‘환경’ 속에서 나타나기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떼쓰듯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말을 많이 한다고 기도를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마6:8).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마7:11). 그렇다면 좋은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아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를 표어로 내걸고 기도하는 삶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여섯 번에 걸쳐 우리는 마태복음에 실린 주님의기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더없이 귀한 가르침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한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주님의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이며, 주님의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할 것은 실제 믿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매일 이 주님의기도를 드리십시오! 아니, 생각날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 기도에 우리의 믿음을 담읍시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녹아들게 하고, 우리의 삶이 이 기도에 녹아들게 하십시다! 이 주님의기도와 함께하는 삶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생생히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기도를 믿음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기도를 믿음으로 드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체험하고 드러내며 살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